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신적 소외와 상실에 관한
연약한 물성표현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이 정 운

정신적 소외와 상실에 관한
연약한 물성표현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노 주 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이 정 운

인 준 서

이정운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현대사회는 그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든 저항을 제거하고 획일화한다. 획일화된 사회는 대인관계에도 작용한다. 이는 서로의 간섭은 최소화하면서 표면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얽박한 형태로 나타난다. 인간은 분열된 자아가 타자의 시선과 규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의식을 실현하는 존재다. 이러한 정신적인 작용은 관계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 어떤 타인의 개입도 관계의 자극도 허락하지 않는 표면적인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정신적인 작용은 소외된다. 현대사회의 표면적 관계는 그 깊이는 얕지만 아주 넓게 나타난다. 넓고 얕은 타인의 개입에 현대인들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신경을 거두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진정한 행복 실현을 위해 살자는 메시지에 너도나도 동의한다. 그러고는 나의 행복을 소셜미디어에 전시한다. 그들이 전시하는 것은 진정한 나의 행복이라기보다 타인의 획일화된 즐거움이다. 본인은 이러한 형태의 현대사회의 가벼움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인 작용으로서의 존재를 더욱 깊이 사려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2021년 석사 청구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첫째, 인간의 분열된 자아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기의식을 실현하는 과정과 근본적인 정신적 존재 방식을 고찰하였고 그것이 본인에게 남긴 감정적 자극을 개인적 경험을 통해 서술하였다. 둘째,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긍정화된 현대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회가 요구하는 가볍고 표면적인 관계에 대한 본인의 부정적인 시각과 감정에 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인 작품 9점에 대한 개별적인 작품설명과 제작방법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모색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 형성 배경	3
1) 자아의 분열과 상실	3
2) 정신적 소외	5
2. 작품 표현 방법	8
1) 반투명적 표현	8
2) 외부 자극의 개입	10
3) 디지털 장치	11
3. 작품 분석	13
III. 결론	37

참고문헌

ABSTRACT

작품 목차

【작품 1】 White Cover	
유리 수조, 빔프로젝터, 영상, 2021	13
【작품 2】 시선	
액션카메라, 종이, 빔프로젝터, 가변설치, 2021.....	16
【작품 3】 그림자	
d/c 모터, 컨트롤러, LED 조명, 조명 레일, MDF 합판,.....	19
가변설치, 2021	
【작품 4】 부유	
아크릴 원통, 물, 기포발생기, 천, 18x18x50(cm), 2021	22
【작품 5】 아지랑이	
천, 서클레이터, mdf합판, 가변설치, 2021	25
【작품 6】 수면	
PE 필름, 가변설치, 2021.....	28
【작품 7】 옷장	
쉬폰천, 가변설치, 2018.....	31
【작품 8】 틈	
고체파라핀, 할로겐 조명, 가변설치, 2019.....	33

I. 서 론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아주 빠르고 간편하다. 현대사회는 그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그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려고 한다. 최소화되는 저항에는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한 타자의 존재도 포함된다. 서로 다르고 낯선 것들에 대한 저항은 매끄러운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한다.¹⁾ 따라서 현대사회는 타자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고 획일화시킨다. 획일화된 현대사회의 대인관계는 아주 얇고 넓게 퍼진 형태로 나타난다. 타인의 시선은 존재하지만 그의 간섭은 밀어낸다.

인간에게 타자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우리 인간은 타자의 시선이 규정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와 동일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정신적인 작용으로 존재한다.²⁾ 하지만 타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정신작용이 최소화된다. 깊이가 없고 그저 표면적인 현대사회의 대인관계에는 정신적인 부분이 결여된 채 인간의 페르소나만이 그 사회를 이루고 있다. 알맹이가 없는 표면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 본인은 껍데기적인 현대사회의 가벼운 소통과 정신적 작용의 부재에서 느끼는 정신적 소외를 느끼고 인간의 정신적인 존재 방식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된다.

본인은 인간의 정신적인 작용에 근거해 인간 내면의 정신이나 감정에 주목하고 이를 연약한 물성을 통해서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지나치게 가벼워진 현대사회의 관계에서 아주 얇팍하게 허락되는 정신적 공간에서 자기의식을 실현하는 정신작용으로 모호하게 존재하는 본인이 느끼는 감정들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본인에게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는 과정은 계속해서 본인

1) 한병철, 「투명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4, p.15

2) 소광희, 「자아 존재론」, 문예출판사, 2004, p.43-47

에게 정신작용의 공간을 제공해주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마주하고 바라볼 수 있는 위로의 과정이기도 하다. 더불어 지나치게 가벼운 현대사회의 껍데기적관계에 지쳐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에 귀 기울이자는 메시지에 격하게 공감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정신적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간을 위로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 정신적 작용으로 모호하게 존재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과 획일화된 현대사회가 탈락시킨 타자의 존재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또한 지나치게 가벼워진 현대사회의 소통방식을 드러내고, 그러한 껍데기적관계가 본인에게 주는 감정적 여파를 작품으로 표현한 바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얇고 연약한 물성이나 반투명한 물성을 이용해 제작한 방식, 그리고 그 물성에 외부 압력을 가해 생겨나는 현상들에 집중하거나, 영상매체를 활용한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II. 본 론

1. 작품형성배경

1) 자아의 분열과 상실

우리를 개인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 우리가 진정한 ‘나’ 라고 믿고 있는 가장 깊은 내면적, 정신적 존재를 우리는 흔히 ‘자아’ 라고 말한다.³⁾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자아를 “자신의 존재를 상실한 결여된 주체”⁴⁾라고 정의했다. 개인의 자아는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밖에서 사회적 관계의 경험을 통해 사유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식해 나가는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캉은 우리의 자아는 ‘무’ 라고 할 수 있고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규정된다고 덧붙인다.⁵⁾ 결여된 주체가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과 동일화하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자아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자아는 의식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의식작용을 해야 하는데, 이 의식작용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반성에서 발견된다. 이 반성은 “동일한 자아가 반성하는 자아, 반성 작용을 수행하는 자아와 반성되는 자아로 분열”⁶⁾되어 발생한다. 분열된 ‘반성하는 자아’는 타자를 마주하고, 그의 시선에서 규정되는 자기의 ‘반성되는 자아’를 받

3) 소광희, 「자아 존재론」, 문예출판사, 2004, p.25

4) 손 호머, 김서영 옮김, 「라캉 읽기」, 은행나무, 2006, p.134

5) 손 호머, 김서영 옮김, 「라캉 읽기」, 은행나무, 2006, p.55

6) 소광희, 「자아 존재론」, 문예출판사, 2004, p.43

견하게 된다. 그리고 ‘반성 작용을 수행하는 자아’가 이를 자기 자신으로 동일화하는 과정에서의 사유로서 인간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기 내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자아가 분열되면서 ‘반성하는 자아’는 반성의 의식을 작용하기 위해 자기 내면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이를 자기 소외 혹은 자아의 익명성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즉 자아는 자기 밖에서 자기를 찾아 헤매는 익명의 존재로, 본인의 내면에서 이미 제외되어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⁷⁾ 이 과정에서 자아를 이해할 때 ‘타아’⁸⁾라는 개념이 들어온다. ‘너’의 개념이 없으면 ‘나’의 개념도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의 존재는 타자에 의해 인식될 수 있다. 이때, 나를 파악하고 규정하는 소외된 나 자신도 나의 ‘자아’에 있어서는 ‘타아’가 되는 것이다.⁹⁾

본인의 작업은 이 ‘타아’의 위치에서 본인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에서 출발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완전한 자기 자신을 찾아 헤매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기 자아를 성립해 나간다. 성인이 된다고 해서 자아가 자연스럽게 완벽하고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타아’가 본인에게는 늘 불안한 감정을 선사한다. 완벽한 타자가 되지도, 완전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속하지도 못하는 ‘타아’의 위치는 본인의 어린시절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본인은 어린 시절 다른 또래들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 소속된 사회적 배경 없이 또래집단 보다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비슷한 또래의 환경과 달랐던 그 시절의 경험은 본인에게 소속감과 평범함이 주는 안정감을 동경하도록 했다. 스스로 평범하지 못하다

7) 소광희, 「자아 존재론」, 문예출판사, 2004, p.44

8) ‘자아’라는 의식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악할 때 성립하고 이때 자신은 ‘자아’로서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타인의 ‘자아’는 자신에게는 ‘타아’이다. 인간은 ‘자아’를 ‘타아’와 대립시켜 파악한다. 네이버, 철학사전, ‘타아’, (<https://terms.naver.com/>)

9) 소광희, 「자아 존재론」, 문예출판사, 2004, p.48-50

고 여겼던 어린 시절의 불안정함은 타아의 존재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불안정함으로 환기했다.

본인의 작품은 이러한 불안정한 자신을 바라보는 ‘타아’의 감정을 주로 이야기한다. 단단하지 못하고 뚜렷하지 못하며 늘 변하고 흐르는 존재로서 안정감과는 거리가 먼 분위기가 본인의 작품에서는 자주 등장하게 된다. 【작품 5】 <아지랑이>나, 【작품 4】 <부유>에서처럼 ‘타아’의 시선에 맺힌 본인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천들이 썰 새 없이 흔들리고 떠다니는 형태로 그 불안정함을 표현하곤 했다. 본인의 작품은 불안정한 본인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대로 마주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본인 내면의 불안정한 변화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드러내 표현하는 작업 과정 자체가 본인에게는 자아를 정립해나가는 과정, 즉, 내면의 자아가 분열되어 반성하고 반성되어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되어준다.

2) 정신적 소외

우리는 타자의 시선을 통해 자기의식을 실현한다. 이는 우리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어주기도 한다. 우리는 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계속해서 자기를 인식해간다. 본인은 이 과정에서 타자가 규정하는 모습, 즉 타자에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개인의 모습이 페르소나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석한다. 페르소나는 인간의 외적 인격으로 사회 집단 안에서의 역할과 규범을 수행하고 집단으로 동화되기 위해 쓰는 가면이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우리에게 사회와 관계를 맺는 가장 표면적 존재인 페르소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신경을 거두고 나 자신의 진정한 실현과, 오로지 나의 행복에만 관심을 기울이자는 움직임이 유행처럼 번지는 현대사회에서 페르소

나의 존재는 ‘부캐’¹⁰⁾라는 은어로 유쾌하게 재해석 된다. 타인과 관계를 맺는 나와, 오로지 나 자신과 관계를 맺는 나의 모습을 구분하고 ‘부캐’를 오히려 잘 이용해 ‘본캐’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자극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가벼운 공기의 사회적 변화가 매우 달갑지만은 않다. 사람들이 점점 더 가볍고 쉬운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철학자 한병철교수는 이러한 사회의 가벼운 변화를 ‘투명성’에 빗대어 표현한다. ‘투명성’은 우리가 “아무런 저항 없이 자본과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흐름에 순응할 때”¹¹⁾ 발현되고, 그 어떤 정신적, 감각적 요소, 심지어는 타자와 자기 자신의 개입까지도 제거함으로써 모든 것이 획일화되어 사회의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만들어 준다.¹²⁾ 여기서 말하는 획일화는 대중적인 표준을 만들어 그것의 언저리에 모두가 부합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그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 남들과 다른 모습을 제거하거나 숨기게 된다. 그렇게 특별히 뾰족하지도 특별히 둥글지도 않게 비슷한 모양으로 획일화된 것들이 모여 만든 ‘투명한 사회’에서 본인은 인간의 정신적 작용과 개인의 의식은 불투명하게 비춰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투명화’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가볍고 알팍한 표면적인 관계들이 수두룩하다. 나 자신의 행복을 최고로 두고 살자는 현대인들은 오로지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이미지에 맞춘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병철의 저서 「타자의 추방」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은영의 논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타자의 부정성 또한 포화해 버리는 과잉 긍정 시대에”¹³⁾에서 인간관계는 그저 ‘좋아요’ 버튼으로 한없

10) 본래 게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온라인 게임에서 본래 사용하던 계정이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부캐릭터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이후 일상생활로 사용이 확대되면서 ‘평소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할 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캐’,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1) 한병철, 「투명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4, p.13

12) 한병철, 「투명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4, p.13-27

이 가볍게 존재한다. 이렇게 표면적인 자기표현이 가득한 사회에서 인간의 정신적인 작용은 소외된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상적인 표현들을 ‘오글 거린다’는 말로 단번에 소외시킨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표준에 어울리는, 오글거리지 않으며 심오하고 깊은 사유와 표현들은 투명사회에서는 불투명하다.

‘투명화’를 추구하는 현대사회는 우리가 진정한 자기를 찾는 방식을 방해하고 훼손시킨다.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타자의 존재가 투명사회에서는 그저 나를 드러내거나 숨기게 하는 대상이 될 뿐이다. 본인은 이러한 현대 사회의 투명화 속에서도 본인의 자아를 잃지 않고 소외된 정신 작용을 이어나가기 위해 작품활동을 진행해왔다. 작품을 구상,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사유하며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어가는 정신적 활동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 또한, 작품을 통해 그 너머의 정신적인 것이 결여된 페르소나의 집합소, 껍데기뿐인 표면적인 관계들에 대한 마음의 무게를 표현해내고자 했다.

13) 정은영. “자기실현의 요구가 현대인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2020. 서울, p.28

2. 작품표현방법

1) 반투명적 표현

본인의 작품은 정신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표면적인 장치를 통해 드러낸다. 표면은 사물의 가장 바깥쪽, 즉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을 말한다. 인간의 표면은 자기 자신의 시선과 타인의 시선이 만나는 접점에 존재한다.¹⁴⁾ 본인은 그 접점에서 타인에게 드러나는 개인의 모습을 페르소나로 인식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개인의 모습이자,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해주는 경계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경계는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아주 명확한 단어이다. 하지만 본인의 작품에서의 경계는 흐릿하고 모호하다.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짓기보다는 ‘내가 아닌 것’의 범주에 머무르고자 하는 ‘나’의 심리상태는 불안정하다. 더불어 이미 내면에서 분열한 자아를 지닌 인간의 물리적 활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표면 또한 늘 불완전하다.¹⁵⁾ 본인의 작품은 이 불완전하고 모호한 본인의 존재를 그대로 마주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의 연속이다. 본인은 이렇게 모호하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반투명한 재료의 성질에 이입해 표현했다.

획일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투명성은 본인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투명성은 본인에게 정신적 활동에 대한 소외를 겪게 하고 타자의 수많은 시선으로 모호해진 페르소나를 파괴하려 든다. 가면은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가리는 성질이 있다. 페르소나는 불안과 위안의 공존이다. 본인은 이 불안과 위안

14) 민이언, 「불안과 함께 살아지다」, 다반, 2018, p.20

15) 노영덕, 「플로티노스의 미학과 예술의 존재론적 지위」, 한국학술정보, 2008, p.16

의 양면성을 작품에서 반투명함에 은유해 표현했다. 이는 모호한 경계의 표현과 맞닿아있고, 투명함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

본인에게 모호한 경계는 아주 얇은 막의 형태로 인식된다. 본인은 투명한 관계를 한없이 알뜰하고 가벼운 무게로 이해했다. 이 가볍고 선명한 관계를 본인이 더 동경하는 모호하고 가볍지 않은 분위기로 환기하고자 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색상과 반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얇은 천을 주로 사용했다. 미색의 얇은 천은 【작품 7】〈옷장〉에서처럼 주로 천장에서 늘어뜨리는 형식으로 설치되었다.

특히 【작품 7】〈옷장〉에서는 얇은 천으로 옷의 형태를 만들어 높은 천장에서 관객들의 시선 위에서 옷의 형태가 끝나도록 설치했다. 아주 큰 크기의 옷의 밑자락 형태의 작품을 올려다보도록 유도해서 그 작품의 크기를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동시에 작품 아래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유도해 경계의 모호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작품 5】〈아지랑이〉에서는 같은 종류의 천을 사용했는데, 이 작품에서는 천장과 바닥에서 끝을 잡아주는 형태로 설치하고, 전시장의 한쪽 벽면을 짝 채워 설치했다. 이것은 다른 공간적 요소보다 천의 움직임 자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던 설치방식이다.

반투명한 표현은 미색의 얇은 천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다. 【작품 8】〈툼〉에서는 반투명한 파라핀으로 표현했다. 이 파라핀은 두께를 주어 무게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천의 사용과 다른 형식을 가진다. 【작품 7】〈옷장〉에서 가벼워 보이는 재질과 그와 상반되는 분위기의 설치방식을 통해 투명한 관계가 남긴 무게를 환기했다면, 【작품 8】〈툼〉에서는 불완전한 신체의 형태와 미열에 의해 녹아내리는 현상을 전시해 모호한 경계의 표현과 표면적 관계의 허무함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했다. 이 작품의 설치방식의 특별한 방식은 전구와 함께 열에 약한 파라핀을 설치해서 전구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열로 인해 파라핀이 녹아 내리는 과정 자체를 전시한 것이다. 전구의 열이 녹이는 것

은 본인의 신체가 캐스팅된 형태였다. 완전하지 않은 인체의 일부분이 녹아내리면서 그 형태를 더욱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이 전구의 열은 투명함을 요구하는 획일화 된 사회를 은유한다. 이 열은 파라핀의 모호하고 반투명한 형태를 점점 사라지게 만들었다.

2) 외부 자극의 개입

본인의 작품에는 연약한 물성의 재료들이 다수 등장한다. 쉽게 찢어지거나 녹아내리거나 하는 연약한 물성의 재료 특성을 더욱 강조해 표현하기 위해 인위적인 자극을 작품에 개입시키기도 했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어떤 현상을 유발하는 장치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이는 다양한 타인의 시선이 만드는 페르소나를 은유하기도 하고, 투명함을 요구받는 자극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작품 8】〈틈〉에서처럼 전구에서 발생하는 작은 미열을 작품에 개입시키거나, 【작품 6】〈수면〉에서는 재료에 직접 열을 가하기도 하고, 【작품 5】〈아지랑이〉에서는 인위적인 바람, 【작품 4】〈부유〉에서는 물속에서 나오는 공기 방울로 작품에 사용된 재료에 압력을 가한다. 이 압력은 재료의 형태를 무너뜨리거나, 계속해서 흔들려 고정되지 못하게 하거나, 물성 자체를 비틀어 버리기도 한다.

특히 【작품 6】〈수면〉에서는 투명하고 매끄러운 비닐 위에 반투명하고 거친 표면으로 가공된 필름에 직접 열을 가했을 때 필름이 변하는 현상을 관찰했는데, 필름은 본래의 비닐의 물성으로 돌아갔다. 비닐 재질은 다양한 외부 자극에도 쉽게 그 형태나 표면이 변하는 특성이 있다. 필름에 가한 직접적인 열은 필름이 우그러지거나, 늘어지거나 혹은 그을리거나 겔 코팅이 녹아내려 원래 비닐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기도 했다. 반투명하고 평평한 특성을 녹여 울퉁불퉁하고 얼룩덜룩 투명과 반투명이 공존하는 물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필름

을 천장에서 늘어뜨려 바닥까지 길게 이어지도록 설치함으로 관람객의 시야에 작품 자체만 걸리지 않고 주변의 공간과 함께 감상하기를 의도했다. 투명과 반투명, 늘어진 것과 우그러진 것들이 한 면에 존재하면서 관람객의 공간에 대한 시각적 인식을 왜곡시킨다. 또한, “투명한 물질의 성질에서 기인한 특성으로 인해 공간상에 배치될 경우 투명한 물질은 중첩의 효과로 동시에 인식되는 지각 경험으로서 확장된 개념을 가지게 된다.”¹⁶⁾

【작품 5】〈아지랑이〉에서 인위적 바람이나, 【작품 2】〈부유〉의 물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공기 방울은 얇은 천이 계속해서 한 형태로 고정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 표현 방식의 범주에서 위와 같은 맥락에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외부 압력의 개입은 인간의 표면을 무력하게 만들어 그 형태가 고정되지 못하게 만드는 타인의 시선을 은유하고 있다.

3) 디지털 장치

디지털 장치를 통해 보는 이미지는 가상이다. 하지만 오직 보이는 한에서만 가치를 획득하고, 전시되지 않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화된 이미지는 더이상 가상이나 거짓으로 여기지 않는다.¹⁷⁾ 본인은 이 디지털 장치를 작품 속에서 불완전한 존재 방식, 좀 더 좁게는 타아의 존재 방식과 같은 자아의 형태로 드러내고자 했다. 존재하고 있지만, 타인의 인식으로 규정되는 과정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자아의 불완전한 존재 방식을 본인은 대부분 디지털 기법을 빌려 표현했다.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디지털 장치 혹은 영상은 대부분 본질, 즉 내적 주체의 행방을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촬영 후 다시 영상으로 재생시키거나, 내가 바라보

16) 양은주. “설치미술에서의 물리적 구조와 상호관계에 의한 조형성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1. 부산,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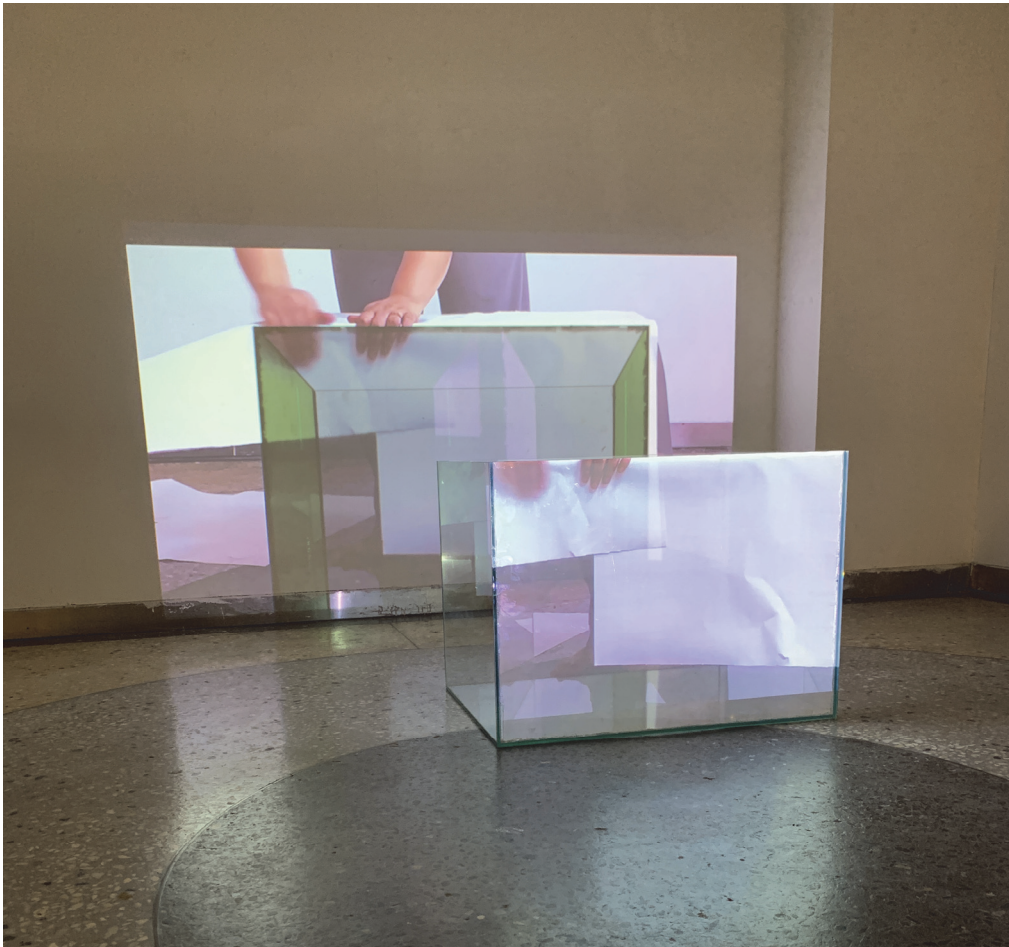
17) 한병철, 「투명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4, p.29

는 곳에 내 모습이 투영되어 나를 바라보게 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에서도 영상의 개입은 또 다른 ‘응시’¹⁸⁾의 개념을 환기한다. 이 응시의 개념은 【작품 5】〈시선〉에서 특히 발견된다. 【작품 5】〈시선〉에서는 관람객이 응시하는 공간에 설치된 장치들이 관람객이 서 있는 공간을 보여준다. 이는 거울처럼 자신의 의지로 본인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타아’로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하다. ‘타아’로서 자기의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관람객이 자신의 존재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작품 1】〈White Cover〉에서 영상은 빔프로젝터를 통해 실제 설치되어있는 오브제에 직접 투사된다. 작품이 설치되어있는 공간을 감상함과 동시에 수조에 비치는 영상을 한 번 더 응시하게 된다. 실제 오브제 위로 흰색 종이를 덮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관객들은 수조의 표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행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의도된 현상은 실제 오브제는 그저 그 물질과 형태 그대로지만, 빛으로 쏘아 투사되는 영상은 계속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다. 영상은 아니지만, 빛의 투사를 이용한 【작품 1】〈그림자〉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오브제에 직접 투사되는 빛은 그저 오브제를 비추기만 할 뿐, 오브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한다. 불완전한 내면과 타인의 시선이 만나는 접점에서 만들어진 표면의 한계성을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18) 안구의 초점이 대상이나 장면에 고정되는 것. 수 초간 지속되는 이 고정 시간 동안 관찰자는 자극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네이버 심리학 용어사전, ‘응시’, ‘<https://terms.naver.com>’

3. 작품분석



【작품 1】 White Cover

【작품 1】 White Cover

연도: 2021

크기: 가변설치

재료: 유리 수조, 빔프로젝터, 영상

제작방법

1. 비어있는 유리 수조와 카메라를 설치한다.
2. 수조 주변에 다양한 크기의 흰색 종이를 펼쳐 놓는다.
3. 유리 수조의 옆면과 윗면에 흰색 종이를 덮는 영상을 촬영한다.
4. 종이를 걷어내고 유리 수조를 해당 전시 장소에 놓는다.
5. 촬영해두었던 영상을 빔프로젝터를 통해 비어있는 유리 수조 위로 투사한다.

작품설명

비어있는 내면 위로 여러 가지의 가면을 덮어쓰는 행위의 공허함을 이야기한 작품이다. 이미 주체를 상실한 내면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채 타인의 시선에만 의지해 덮어쓰는 가면은 그저 표면을 걸돌 뿐이다. 본인은 어려서 겪었던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 대한 결핍으로 살면서 만나는 환경에서 늘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게 되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다방면으로 대중 사회가 규정지어놓은 표준에 속함과 동시에 타인의 감정과 생각에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아주 다양한 가면이 필요했다. 그래서 환경이, 사람이 요구하는 모습의 가면을 만드는 것에 열중했다. 가면이 다양해질

수록 본인은 진정한 나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렇게 스스로 내면에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면은 텅 비어있었고 진정한 내 모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본인에게는 주인을 잃어버린 내면과 가면을 덮어쓰던 행위만 남아있었다. 비어있는 것 위에 무엇을 덮는다는 행위의 모순은 불완전한 존재를 더욱 공허하게 만든다.

덮는 행위의 공허함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영상과 오브제의 대비를 주고 싶어 모니터 형식이 아닌 빔프로젝터의 빛 투사 방식을 선택했다.



【작품 2】 시선

【작품 2】 시선

연도: 2021

크기: 가변설치

재료: 액션카메라, 종이, 빔프로젝터

제작 방법

1. 전시장 내에 또 다른 작은 공간을 마련한다.
2. 공간 안의 가장 안쪽 부분에 빔프로젝터를 설치한다.
3. 긴 종이를 천장에서 늘어뜨려 각기 다른 각도로 공간을 채운다.
4. 종이 앞에 액션 카메라를 관람하는 위치를 향해 설치한다.
5. 액션카메라와 빔프로젝터를 연동해 카메라에 잡히는 광경이 빔프로젝터를 통해 바로 투사될 수 있도록 장치를 조작한다.
6. 카메라와 빔프로젝터를 모두 가동한다.

작품설명

우리 인간의 걸음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에는 다양한 타인의 시선이 존재한다. 그토록 내 삶의 주체는 나이길 원하면서도 우리는 타인이 쉽게 내 일상을 볼 수 있는 곳에 그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행복하고 좋아 보이는 모습을 전시한다. 그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규정한다.

본 작품은 움직이면서 감상하는 작품이다. 카메라가 비추는 것은 관람객이 서 있는 모습과 그 뒤의 풍경이다. 관람객은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동시에 그 모습을 그대로 비춰내는 종이 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카

메라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광경이 그리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관람객이 직접 움직이면서 감상하는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카메라에 잡히는 피사체(관람객 본인)의 위치나 각도 등이 달라 보인다. 과연 자기의 존재를 바라며 규정하고 평가하는 존재가 타인의 시선인지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서 스스로 바라보는 자기 자신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랐다.



【작품 3】 그림자

【작품 3】 그림자

연도: 2021

크기: 가변설치

재료: d/c 모터, 컨트롤러, 조명 레일, LED 조명, MDF 합판

제작방법

1. MDF 합판으로 직사각형의 기둥을 제작한다.
2. d/c 모터에 컨트롤러를 부착해 모터가 좌우로 회전하도록 장치를 조작한다.
3. 모터 상부에 조명레일과 조명을 부착한다.
4. 전시장에 직사각 기둥을 설치한다.
5. 조명과 모터를 기둥의 정면과 측면에 설치한다.
6. 조명이 기둥을 비추도록 조작하고 장치들을 가동시킨다.

작품 설명

의도된 움직임대로 조명의 빛이 돌아가면서 하나의 오브제에 다양한 각도의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나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표면적 모습을 이야기한 작품이다.

본인은 나를 바라보는 타인들의 여러 가지 평가에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부모님이 바라보는 나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나,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내 모습이 다 달랐고 본인은 그것에 의문을 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이 모두 나의 일부분이고 사람들은 그 일부분을 가지고 본인 그 자체를 판단하고 바라본다고 생각했다. 피사체를 비추는 각도나 거리에 따라 생기는 그

림자의 모양은 모두 제각각이다. 하지만 그 모든 그림자는 피사체 하나에서 나온 것으로, 빛을 비추는 조명의 각도만 그림자의 모양을 결정짓는다.

작품에서 그림자의 주체가 되는 피사체를 직사각의 기둥으로 제작한 것은 그 주변 환경에서 크게 눈에 띄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피사체가 주는 존재감을 최대한으로 배제하고 그림자만이 강조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직사각 기둥에 전시장의 벽면과 같은 흰색을 칠했고, 전시장의 구석 모서리에 맞춰 설치했다. 기둥을 비추는 조명은 두 개로 나누어 설치했는데, 이는 타인의 시선과 타아로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공존하게 만들고 싶었다. 두 개의 조명 모두가 상하좌우로 움직이는데, 두 조명의 회전 시간을 조정해 계속해서 새로운 각도로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랐다.



【작품 4】 부유

【작품 4】 부유

연도: 2021

크기: 18x18x50(cm)

재료: 아크릴 원통, 물, 기포발생기, 천

제작방법

1. 플라스틱 원통 아랫부분에 작은 구멍을 낸다.
2. 구멍 안으로 기포 발생기의 호스를 연결한다.
3. 플라스틱 원통 안에 물을 가득 담는다.
4. 물속에 천 조각 하나를 띄운다.
5. 기포 발생기를 작동시킨다.

작품설명

본 작품은 물과 공기가 만들어내는 힘으로 물속에 잠겨있는 천 조각이 물속을 부유하며 모양이 변하는 현상에 집중한 작품이다. 물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공기 방울은 안에 담긴 천 조각을 한시도 잔잔하지 못하게 만든다. 공기 방울이 만들어내는 방향 따라 매 순간 모양을 바꾸면서 물속을 부유하지만 물 밖으로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천 조각은 인간의 불완전한 존재 방식이 초래하는 불안과 무력한 표면의 한계를 표현한다. 내면의 결핍으로 인해 어떠한 명확한 형태로 유지될 수 없는 표면의 모습과 타인의 인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나의 모습이 작품을 통해 설명되기를 바랐다.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위 현상을 관찰하며 실험하는 과정에서 부유하는 천

조각을 냈 놓고 오랜 시간 바라보게 되었다. 천 조각의 모양은 좁은 통 안에 갇혀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헤엄치며 공기의 흐름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본인의 내부에서 나와 타인의 시선들에 흔들리는 본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본인의 존재를 마주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과정의 연장으로 여기는 본인에게 또 다른 감상을 준 작품이다. 물속에 있는 천이 기포에 의해 모양을 이리저리 바꾸는 모습은 그리 부자연스럽거나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그저 유연하게 그 상황을 지내고 있을 뿐이었다. 물속에서의 유연한 천 조각은 더 이상 내면의 결핍을 반영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다.



【작품 5】 아지랑이

【작품 5】 아지랑이

연도: 2021

크기: 가변설치

재료: 천, 서큐레이터, mdf합판

제작방법

1. 얇고 가벼운 천을 비슷한 넓이와 길이로 자른다.
2. 서큐레이터가 들어갈 크기의 좌대를 준비한다.
3. 좌대 안에 서큐레이터를 설치한다.
4. 준비한 천 조각들을 천장에서 좌대까지 연결한다.
5. 좌대 안의 서큐레이터를 작동시킨다.

작품설명

얇은 천에 인위적인 바람을 불어 천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시작된 작품이다. 작품 아래에 설치된 서큐레이터의 방향에, 설치된 천의 길이에 따라 그 움직임은 달라졌다. 아주 빠르고 작은 파동으로 떨리기도 하고 매우 큰 파동으로 펄럭이며 주변 천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전시장의 한쪽 벽 앞에 미색의 천을 가득 메우고 그 떨림을 온전히 바라보면 시야가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기를 바랐다. 본인이 투명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표현하고 싶었다. 조금씩 틈새를 가지고 가지런히 걸려있는 천들은 타인의 시선이기도, 본인의 두려움이기도 하다. 또 바람에 흔들리는 떨림들도 타인의 시선이 야기하는 불

안이기도, 본인 스스로 흐릿해 지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천의 다양한 떨림처럼 다양한 감정이 환기되기를 바랐다. 천의 움직임은 불안한 예리한 떨림도 있고 편안한 상태나 힘찬 떨림도 있다. 본인이 사회를 응시할 때 오는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고자 했다.



【작품 6】 수면

【작품 6】 수면

연도: 2021

크기: 가변설치

재료: PE필름

제작 방법

1. 반투명하게 가공이 되어 있는 PE필름을 길게 늘어뜨린다.
2. 토치 등의 강한 열로 부분 부분을 가공한다.
3. 열이 모두 식으면 천장에 매달아 설치한다.

작품 설명

반투명하게 가공된 필름에 직접적인 열을 가했을 때 필름에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한 작업이다. 필름의 원래 형태는 비닐이었다가, 어떤 가공으로 반투명한 옷을 입었다. 그리고 또 다른 자극 때문에 다시 투명한 부분이 군데군데 생겼다. 두 번째 자극이 가해지면서 필름은 얇아지고, 늘어지고, 그을리고, 또 오그라들었다. 일정한 면을 유지하던 필름은 균열이 생겼고, 하나의 질감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다양한 질감이 생겼다. 여러 가지의 질감과 모양으로 하나의 면을 이루고 있는 필름의 모습은 본인이 생각하는 인간의 표면처럼 느껴졌다. 다양한 시선에 반응하면서 생긴 다양한 모습의 가면들은 불완전한 형태로 그냥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 또한, 필름의 표면이 바다의 일렁이는 수면과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수면은 수면 아래의 공간과 허공의 경계이면서 동시

에 바닷속 풍경 혹은 그 풍경이 만들어내는 색깔을 내비친다. 이런 점에서 수면은 본인이 설명했던 인간의 표면적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설치 당시 삼각형의 구도로 조명을 배치해 필름이 가진 여러 가지 질감을 강조하고자 했다. 조명의 빛을 다양한 질감으로써 반사시키는 필름을 얇은 낚시줄을 이용해 천장에서 바닥까지 불안정한 형태로 설치했다.



【작품 7】 옷장

【작품 7】 옷장

연도: 2018

크기: 가변설치

재료: 쉬폰천

제작방법

1. 얇은 미색의 천을 패턴에 맞춰 자른다.
2. 옷의 형태가 나오도록 재봉틀을 이요해 봉제한다.
3. 전시장의 천장에 설치한다.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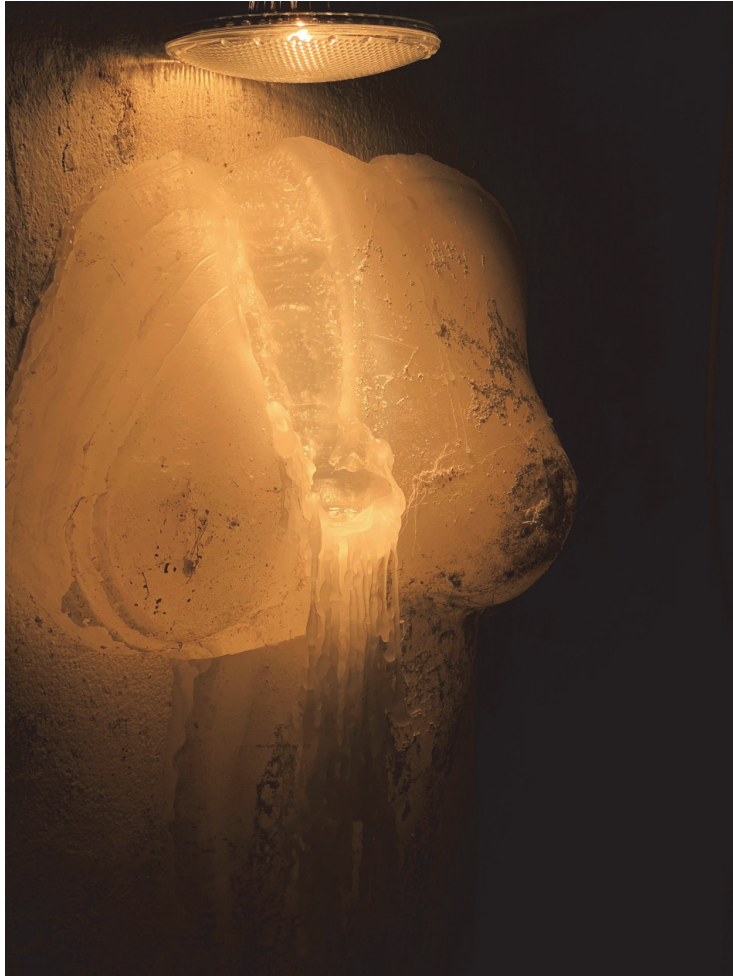
외출을 준비하면서 옷장 앞에 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늘 하루를 생각할 것이다. 오늘 이용하는 이동수단, 오늘 가게 되는 장소, 만나는 사람, 귀가 시간...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페르소나의 형태이다. 본 작품은 옷장에 걸려있는 옷을 크게 확장한 형태로 연출한 작업이다. 우리가 쉽게 마주하는 장면을 크게 확장해 시선 위로 설치해서 관객들에게 그저 가볍지만은 않은 분위기를 환기하고자 했다. 아주 얇고 가벼운 천이지만 그 크기에 의해 실제 무게보다 더 축 쳐진 느낌이 든다. 이는 표면적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의 대인관계의 가벼움과 그로 인해 정신적 소외를 느낀은 본인의 마음의 무게의 모순을 표현하는 작품이다.



【작품 8】 틈



【작품 8】 틈 <설치전경>



【작품 8】 틈 <설치전경>

【작품 8】 틈

연도: 2019

크기: 가변설치

재료: 고체파라핀, 할로겐조명

제작방법

1. 원하는 신체의 부분에 석고붕대를 얹어 캐스팅 할 틀을 만든다.
2. 딱딱하게 굳은 틀에 파라핀을 부어 캐스팅한다.
3. 전시장소에 조명과 함께 설치한다.

작품설명

알맹이가 없는 표면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인간의 정신적인 작용 없이 그저 껍데기로서 상호작용하는 현대사회의 페르소나는 인간의 사회적 작용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그저 가면을 위한 가면이 될 뿐이다. 정신적인 작용이 축소된 인간의 가장 시각적이고 물질적인 껍데기는 육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신체를 직접 캐스팅했다. 이 작품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보다 감상하는 과정의 변화에 집중했다. 할로겐 전구의 열은 60도 정도의 미열이다. 이 약한 열은 본인의 신체 모양을 너무 쉽게 녹여버린다. 녹은 파라핀은 액체의 형태로 변하면서 형태를 무너뜨리고 흘러내리다가 또 금새 다시 굳어버린다. 껍데기적인 관계에서 오는 허무함을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다가 그 관계에서 생긴 상처의 흔적을 감상하게 되었다.

Ⅲ. 결 론

현대사회는 경제적 흐름과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원활하도록 사회에 존재하는 가능한 모든 저항을 줄이고 획일화되어가고 있다. 개인의 매끄러운 커뮤니케이션에 저항하는 타자의 존재도 얇고 넓은 방식으로 획일화되었다. 타자의 시선과 규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작용은 타자의 존재만큼 얇고 가벼워졌다. 타인의 시선은 허락하지만 깊은 개입은 허락하지 않는 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그만큼 가벼워진다.

본 논문은 분열된 자아가 타자의 시선을 통해 자기의식을 실현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존재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고, 모호한 형태의 자기 존재를 마주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는 감정들과 사유의 공간이 결여된 획일화된 사회에서 가볍고 얇은 타인과의 표면적인 관계로 인해 ‘정신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에서 오는 감정을 본인의 작품에서 표현되는 반투명함과 연약한 성질을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분열된 자아의 형태와 자기에게서 소외되어 나온 자아가 타자의 시선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하며 자기의식을 실현시키는 정신적인 존재임을 설명했다. 또한, 타자의 개입이 최소화된 현대사회에서 지극히 가볍고 얇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느꼈던 정신적 소외에 대한 감정을 서술했다. 본인의 작품은 이러한 인간의 내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 감정적인 작용에서 시작된다.

본인은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불완전한 존재 방식을 인식하고 또한 본인이 존재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관계에서 얻는 감정적 정신적 작용들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영상장치를 사용해 모호한 자아의 형태와 거기서 오는 공허한 감정을 환기하기도 하고, 연약한 물성의 재료들에 다

양한 외부 압력을 가하면서 모호한 존재의 모습과 표면적인 현대사회의 관계가 주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며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다. 본인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근본적인 불안의 감정과 사회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본인은 작품을 통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감정을 정리하기도 한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앞으로 겪게 되는 다양한 감정과 문제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더 대중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한병철, 「투명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4
- 민이언, 「불안과 함께 살아가다」, 다반, 2018
- 소광희, 「자아 존재론」, (주)문예출판사, 2004
- 손 호머, 김서영 옮김, 「라캉 읽기」, 은행나무, 2006
- 노영덕, 「플로티노스의 미학과 예술의 존재론적 지위」, 한국학술정보, 2008

《참고논문》

- 양은주. “설치미술에서의 물리적 구조와 상호관계에 의한 조형성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1. 부산
- 정은영. “자기실현의 요구가 현대인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2020. 서울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weak physical properties on
mental alienation and loss.

- Focusing on researcher' s work -

Lee, Joung Woon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 s University

Modern society removes and uniformizes all resistance to speed up and smooth the flow. A uniform society also ac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s appears in a shallow form that minimizes interference with each other and maintains the relationship superficially. Humans are beings in which the divided self discovers itself and realizes self-consciousness through the gaze and regulations of the other. These mental actions require a certain distance between relationships. However, human mental action is alienated in a superficial modern society that does not allow any intervention or stimulation of relationships. The superficial relationship of modern society is shallow but very wide. With the wide and shallow intervention of others, modern people all agree with the message of paying attention to the gaze of others, looking inside me, and living to realize my true happiness. Then, I display my

happiness on social media. What they display is not true happiness, but the uniform enjoyment of others. Through this form of modern society's lightness, I tried to consider its existence as a mental action of humans more deeply.


This thesis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works based on the works submitted to the 2021 Master's Billing Exhibition.


The introduction to Chapter 1 describes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earch of one's work. First, in the main body of Chapter 2, the process of realizing self-consciousness through the gaze of others and the fundamental way of mental existence of humans were reviewed, and the emotional stimuli it left to oneself were described through personal experiences. Second, he revealed the appearance of an overly uniform and positive modern society and described his negative views and feelings about the light and superficial relationships required by society. Finally, individual descriptions of 9 of his works and production methods were described.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3, the contents of this paper were summarized and future work directions were sought.


인 준 서

이정운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장 정정주 (인) 

심사위원 김성복 (인) 

심사위원 노주환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